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일시 2026. 9. 7. (월) 19:00
장소 국제관 9B217

● 개회

총학생회장: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즉 '전학대회'는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학생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학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인준 안건 그리고 논의 및 심의 안건 등이 가결이 된다면은, 총학생회와 더불어 중앙운영위원회 학생회에서 인준 받은 학생회비를 활용하여 2학기 학생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사회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대의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칙 안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안내, 전차 회의록 낭독, 보고 안건, 인준 안건, 논의 안건, 기타 안건, 건의 및 질의사항 그리고 폐회 선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 정족수 확인

총학생회장: 정족수 확인을 위해서 대의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대답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위임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석계를 제출한 인원이 있다면은 해당 인원의 소속 단과대학 대표자분께서 결석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호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확인)

총학생회장: 말씀드리면은 출결 체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임장 또는 결석계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회 출석 호명 당시에 도착하지 않으신 분은 회의록에 무단 결석으로 기재가 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재적의원 총 155명, 그중에서 정족수인 78명 이상인 120인이 출석했으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시각은 19시 10분입니다.

개회하면서 유의 사항 먼저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기 때문에, 출석의원이 정족수인 78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휴회됩니다. 현재 회의 진행 시각은 150분 남짓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디 출석해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나가셨더라도 나눠드렸던 비표 그리고 명찰은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하고 앞에 계시는 중앙집행위원분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 진행 시에 의결 방법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표결 진행을 선포할 경우 비표를 들어서 의결 여부에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양 끝으로 비표를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에 소속과 성명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알림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은 제58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치외교학과 22학번 이재홍입니다. 서기단으로는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경제학과 22학번 황인준 학우,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소비자학과 24학번 홍다현 학우 소개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총학생회장: 다음은 총학생회칙 안내입니다. 자료집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1쪽에 있는 전학대회 관련 회칙 조항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총학생회칙 제55조에 의거하여 소집된 매 학기 초 정기회의이며, 지금부터 10일 전인 8월 28일에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안건은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에 해당합니다. 기타 총학생회칙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8쪽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운영세칙도 일부분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회의의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제2조 회의의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의 용어 제1항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항 개회, 회기 처음 시작을 말한다. 제3항 폐회, 회기의 끝을 말한다. 제4항 휴회, 한 회기 중 회의를 며칠 쉬는 것을 말한다. 제5항 휴게, 회의 중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제6항 정회, 회의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정회 선포 시 회의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논의 안건 상정을 희망하신다면 제4조, 의안 체택 방법 및 회순 통과 조항에 의거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차 회의록 낭독

총학생회장: 그럼 다음으로 황인준 인사운영국장 내정자가 2026학년도 1학기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요점만 짚고 간단하게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안녕하세요,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경제학과 22학번 황인준입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자료집 51쪽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19시에, 경영관 33B101에서 재적의원 151명 중 129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습니다. 개회 선언 후,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은 제58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재홍, 서기단은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황인준,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홍다현 학우가 맡았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칙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고,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안건을 총학생회 운영, 사업 보고, 후원금 결산안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 52쪽부터 56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준 안건 검토 및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준 안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인준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 인준안'입니다. 총학생회 국·차장 내정자 18인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9, 반대 0, 기권 0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준 안건은 '2026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를 제외한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고 그중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에 총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에 44%, 납부 인원 비례에 23%, 학생 수 비례에 33%를 배정한다.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을 나누어 각 단과대학생회로 추가 배분한다.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는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고 그중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하고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해당 금액 50%를 나눈다. 단과대학 학생회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이를 자유전공계열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액 50%와 단위별 인원수 비례액 50%를 각각 산정 후 배분한다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출석의원 130명 중 찬성 126, 반대 3, 기권 1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준 안건은 2026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입니다. 제5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월금,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당기 학생회비, 예금 결산 이자로 받은 수입으로 문행대동제 실무 비용 및 티셔츠 제작에 지출하는 것에 대한 인준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출석의원 130명 중 찬성 130,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의 안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안건은 전 단위 임기 규정 개정 논의 단일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건의 및 기타 질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모든 대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6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20시 26분 기준 폐회되었습니다. 이상 전차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여서 질의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질의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보고 안건입니다. 자료집 57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고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 총학생회 사업 보고, 후원금 결산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료집 5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임기를 시작한 직후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2026년 4월 6일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이후로 금일 18시에 진행된 제23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까지 포함하여 도합 14차수의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4차수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는 2026년 3월 31일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차수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과 산하에 9개의 집행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집행국으로는 사무총괄국, 인사운영국, 학사정책국, 문화기획국, 인권복지국, 대외협력국, 디자인홍보국, 미디어콘텐츠국, 그리고 사회교류국이 있습니다. 저희 9개 집행국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차장 내정자에 대한 소개는 첫 번째 인준 안건인 국·차장 인준 안건 진행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괄국은 총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검토하는 국서입니다. 학생회비, 후원금 등 전체 예산을 집행 및 결산하고 각종 공문 및 기록물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각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운영국입니다. 인사운영국은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운영과 대외적 소통을 담당하는 국서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학우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오프라인 소통창구 및 Speak to S'PEAK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학사정책국입니다. 학사정책국은 학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며,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불편 사항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우들의 의견과 총학생회의 정책을 토대로 학교 본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사 운영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국서입니다.

다음은 문화기획국입니다. 문화기획국은 문화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기획 및 추진합니다. 입학식, 금잔디 문화제, 문행대동제, ESKARA: 초록의 파도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총괄하며 이외에도 학우분들의 캠퍼스 문화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기획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은 학우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사전 인권 교육, 배리어 프리 정책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교내 시설 및 환경 개선, 이동 수단 개선 등 다양한 학생 복지 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서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입니다. 대외협력국은 외부 업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협업, 제휴를 통해 학우분들을 지원합니다. 기업과 프로모션을 유치하여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학교 행사, 학우들의 학교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디자인홍보국입니다. 디자인홍보국은 총학생회 공식 소통창구를 통한 홍보 기획을 총괄합니다. 총학생회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구상하는 모든 시각화를 담당하며 총학생회 행사의 홍보물과 굿즈 제작 등 전반적인 브랜딩 업무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국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은 총학생회 행사 및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 단계 등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감 있는 사진 촬영을 통해 사업 및 행사의 모습을 공유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류국은 졸업을 앞둔 학우들과 사회에 진출한 동문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졸업 행사 전반을 총괄하고 다양한 동문 대상 사업을 진행하여 동문과 학우들을 잇는 성균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사회 진출 지원을 담당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총학생회 운영 보고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총학생회 사업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사업 보고는 허서영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부총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제58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경제학과 23학번 허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58대 총학생회 S'PEAK가 상반기 동안 진행한 53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은 6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사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동행동입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정확학 경위 파악 및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해 국내 대학들과 여러 공동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헌혈 정기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혁신 사회공헌단 다소미와 인사캠, 자과캠, 헌혈 정기전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358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중간 사업 보고입니다. 총학생회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 및 공약 이행 과정을 공유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4월 29일 스피크 아카이브를 통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정리 공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오프라인 소통창구 Speak to S'PEAK입니다.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충분히 수렴하기 어려운 학우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대외협력국과 사회교류국, 인권복지국, 학사정책국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 오피스아워 운영입니다. 새 학기 학우들의 학교생활과 편의를 높이고 물품 대여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오피스아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익명 오프라인 건의함 SKKUPOST 운영입니다. 학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된 의견이 사업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익명 오프라인 건의함을 운영하였습니다. 캠퍼스 4개의 장소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담당 부서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적어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여름방학 중 오피스아워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중 학생회관 4층 총학생회실에서 운영되었으며, 대여 물품 목록과 이용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SKKU_MAGAZINE TF 운영입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 공지 방식에서 벗어나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SKKU_MAGAZINE TF를 구성하고 교내 충전기 위치, 중앙학술정보관 이용법 등을 매거진의 형식으로 제작 후 게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2학기 운동장이용협의회입니다. 2학기 대운동장 사용 시간과 라커룸 이용을 조율하기 위해 운동장 이용을 희망하는 동아리 및 단체 대표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및 학사제도에 대한 사업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강의실 학업 환경 개선입니다. 정원 오류 및 책걸상 부족 문제, 전자출결 단말기 인식 오류와 책걸상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진행하였으며, 273건의 불편 사례를 접수하여 총 52개의 강의실의 책걸상 교체 및 78건의 비콘 단말기 점검을 학교에 요청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여름 계절 수업 개설 희망 강좌 수요조사 시행 안내입니다. 여름 계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우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참여를 안내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군 훈련 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 조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출석 인정 및 녹화 영상 등이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강의명과 교강사명, 침해 내용 등을 조사하고 수합된 사례를 학교 본부에 전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군 학업 환경 실태조사입니다.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과목 등 군 학업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본부와의 논의에 활용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은 학점포기제도 재도입 추진입니다. 대규모 설문조사 ASKk:U를 통해 학점포기제도 재도입에 대한 학생사회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학업 선택권과 전공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미팅 및 정기 교학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성적우수장학금 통합 공지 안내입니다. 단과대학과 학부 학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성적우수장학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전체 과목 대상 강의계획서 미작성 및 부실 작성 사례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강의계획서가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과 합리적인 수정 계획 수립의 기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강의계획서 미작성 및 주요 사항 누락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수합된 내용을 교무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은 1학년 전공과목 P/F 평가 제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1학년 전공과목 P/F 평가 제도에 대한 학생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 및 분석 자료는 학교 본부에 전달하였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학기에는 7월 28일 발표된 원안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은 제2차, 제3차 교학 정기회의입니다. 교학 제2차 회의에서는 성적우수장학금, 자유전공계열 전공 정원, 비교과 장학금과 프로그램 다양를, 제3차 회의에서는 군 학업 환경, URP 참여 편의성, 강의평가 운영 체계 개선을 안건으로 다뤄 학생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복지, 안전에 관한 사업입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군 조식 사업입니다. 예비군 기본 훈련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건강과 체력 보충을 돕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삼각김밥 및 음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간식배부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학업에 힘쓰는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4월 15일 금잔디광장에서 음료와 간식을 배부하고 문행대동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Pick for S'PEAK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은 양심 생리대 사업입니다. 학교 생활 중 갑작스레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고 필요한 학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아이코코 미우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업은 노동절 기념 교내 노동자 감사 행사입니다. 교내 노동자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소미 및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단위와 협력하여 자필 편지와 다과 선물을 5월 1일 노동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교내 와이파이 이용 실태 및 불편 사항 설문조사입니다. 교내 와이파이 연결 불량과 접속 끊김으로 인한 불편을 파악하고 정보통신팀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계인문과과 수선관의 우선 점검, AP 추가 설치 및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업은 엑시트 이상근 감독님과 함께하는 동문 초청 강연회입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재학생과 동문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영화 감독 이상근 선배님을 초청하여 영화 감독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업은 인권침해사례조사입니다. 학내 인권 침해를 겪거나 목격한 학우들이 사례를 제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시 온라인 제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은 2026 문행대동제 배리어 프리 존 및 패스트트랙 운영입니다. 장애 학우와 이동이 어려운 학우들이 축제를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존을 운영하고, 공연 관람을 위한 초기 문자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통해 축제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입니다. 닭가슴살과 주먹밥, 에너지 드링크 등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여 학우들의 기말고사 시험을 응원 및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사업은 라운지 이용 수칙 안내문 부착입니다. 교내 라운지마다 규정이 달라 학우들이 이용 수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6개의 라운지에 안내문으로 제작 후 부착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사업은 i-Campus 오프라인 시험 기간 혜화역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i-Campus 오프라인 시험 기간, 주말에 등교하는 학우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 기간 혜화역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사업은 낙후 시설 전면 개선 사업: Campus plus+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학내 낙후 시설을 개선하고 등록금 인상의 효용을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 시찰을 바탕으로 교내 건물의 리모델링, 시설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및 방역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학위복 대여사업입니다. 2026년 8월 졸업생들이 성균관대학교의 전통 학위복을 착용하고 학위

수여식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학위복 대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 사업은 '다시 성균에게' 학위수여식 기부 캠페인입니다. 졸업생들의 학위수여식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 기부자 대상 붉은 말 졸업 인형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 사업은 양심 생리대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양심 생리대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이용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사회, 소통 및 정보 제공, 학업 및 학사제도, 인권 복지 안전에 관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야구 단체 관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구성원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학생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8일 야구 단체 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사업은 2026 문행대동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조성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15일에 걸쳐 문행대동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사업은 문행대동제 스케치 사진 및 영상입니다. 문행대동제의 현장과 학우들의 참여 모습을 직접 기록하고 축제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사업은 2026 킹고대장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박 7일간 139.8km의 거리에 걸쳐 킹고대장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사업은 2026 킹고대장정 스케치 사진 및 영상입니다. 킹고대장정 참가자들의 도전 과정과 현장 경험을 기록하고 사업의 의미를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마흔 번째 사업은 정보 전달용 숏폼 콘텐츠 제작입니다. 학우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행대동제, 양심 생리대 등 총학생회 주요 사업과 교내 생활 정보를 숏폼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 후 게시하였습니다.

마흔한 번째 사업은 문행대동제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문행대동제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축제 기획의 근거 마련 및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흔두 번째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브랜드 설문 참여 안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브랜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의 참여를 안내하였습니다.

마흔세 번째 사업은 응원가 가사 공모전입니다.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하는 응원 문화를 조성,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응원가를 만들기 위해 킹고응원단과 함께 가사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마흔네 번째 사업은 SKKU X Aurapic 포토부스 설치입니다. 학위복 대여 기간에 맞춰 교내에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아우라픽과 협업하여 포토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사업은 2026 ESKARA: 초록의 파도 응원 OT입니다. ESKARA: 초록의 파도에 앞서 응원 문화와 행사 참여 방법을 안내, 성균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해 킹고응원단과 함께 응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브랜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휴 관련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사업은 문행대동제 SKKUTOWN입니다. 문행대동제 기간 학우들이 상권과 연계된 혜택을 누리며 확장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SKKUTOWN을 운영하였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사업은 캠퍼스 어택입니다. 기업과 협업하여 현장 참여형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ETS, T 멤버십과 연계한 캠퍼스 어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사업은 의료 관련 제휴입니다. 학우들이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사업은 학업 관련 제휴입니다. 학업과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교육, 시험, 어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할인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쉰 번째 사업은 문화 관련 제휴입니다. 학우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 전시, 콘텐츠 및 체험 분야의 제휴를 운영하였습니다.

쉰한 번째 사업은 2026학년도 2학기 Adobe Creative Cloud Named License 신청자 모집입니다. 학업과 창작 활동에 필요한 어도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학기 신청자를 모집 후 라이선스를 배포하였습니다.

쉰두 번째 사업은 2026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입니다. 자취생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자 자취생 대상 제휴 및 생활 정보 제공을 결합한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취와 관련된 수요조사와 제휴 혜택을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50여개의 혜택을 정리하여 학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쉰세 번째 사업은 SKKUPASS 추가 편입니다. 기존 SKKUPASS 성균인 멤버십 제휴를 확대하여 학우들이 학교 생활과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마련하고 8월 14일 추가 제휴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53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며 성균관대학교만이 학생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세 번째 보고 안건은 후원금 결산안입니다. 후원금이라 함은 총학생회가 학생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풍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 기업 또는 여러 기타 외부 단체, 학내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후원금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후원금

세부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결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대의원분 계실까요?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후원금 결산안은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3월 31일부터 오늘 9월 7일자까지 기준의 결산안입니다. 일단 수입으로 전기 후원금 이월금 22,780,442원, 제휴 광고비, 2,542,565원, 대학원 총학생회로부터 1,300,000원, 학위복 대여사업 연체료 및 손망실비로 1,165,000원, 문행대동제 수입 30,712,377원, 그리고 문행대동제 자과캠 분할 납부 차액 463,600원, 예금 이자 및 캐시백 13,689원을 더해 총 58,977,673원입니다. 여기서 제휴 광고비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조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익 내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예비군 조식 사업으로 2,043,600원, 금잔디 문화제 기획사 대금으로 3,190,000원, 1학기 중간고사 간식 배부로 970,210원, 문행대동제 진행에 2,851,200원, 문행대동제 기획사 대금으로 27,621,000원, 문행대동제 자과캠 분할 납부 차액으로 1,138,050원. 또한 겨울 학위복 대여 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으로 1,285,200원이 지출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름 학위복 대여 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으로 지출된 금액은 저희 수입에 보시면 있는 대학원 총학생회 후원금인 1,300,000원에서 한정해서 지출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 총학생회에서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석사생들의 학위복 대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총에서 식비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 총액은 39,099,26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 잔액은 19,878,413원입니다. 증빙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증빙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들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9시 42분이므로 19시 47분까지 증빙 자료 및 세부 지출 내용 확인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47분이 됐는데요. 후원금 결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저희 다음 인준 안건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준 안건

총학생회장: 네 인준 안건입니다.

인준 안건은 총 4가지가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다음 인준 안건인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 인준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9개 집행국의 국장 차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내정한 국장 차장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대의원분들께 직접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을 받고자 하시는 국장 차장 내정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 중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8인의 국·차장 내정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장 겸 사무총괄국장 내정자 글로벌경제학과 23학번 김한솔 학우입니다.

사무총괄국장 차장 내정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4학번 조은호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경제학과 22학번 황인준 학우입니다.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소비자학과 24학번 홍다현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독어독문학과 23학번 현지혜 학우입니다.

학사정책국 차장 내정자 교육학과 24학번 이수민 학우입니다.

인권복지국장 내정자 교육학과 23학번 박영웅 학우입니다.

인권복지국 차장 내정자 사회학과 24학번 이수하 학우입니다.

대외협력국장 내정자 글로벌리더학부 23학번 장한결 학우입니다.

대외협력국 차장 내정자 경영학과 25학번 심지현 학우입니다.

디자인홍보국장 내정자 디자인학과 23학번 임다빈 학우입니다.

디자인홍보국 차장 내정자 디자인학과 23학번 나의현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장 내정자 영상학과 22학번 우민선 학우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 차장 내정자 영상학과 22학번 송유진 학우입니다.

사회교류국장 내정자 심리학과 23학번 오승희 학우입니다.

사회교류국 차장 내정자 철학과 23학번 박나림 학우입니다.

국·차장 내정자께서는 단상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장: **문화기획국 호명하지 않은 것을 파악됩니다.**

총학생회장: **죄송합니다, 문화기획국장 내정자 그리고 문화기획국 차장 내정자 두 분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준을 받을 국장 차장 내정자에 대해서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국장 내정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3학번 박소원 학우입니다.

문화기획국 차장 내정자 글로벌리더학부 24학번 박서희 학우입니다.

두 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진행해 드린 국·차장 인준 안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는 대의원분 계실까요? 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지금 현재 재적 이원 155명 그리고 이 중 출석 의원이 123명이므로 인준 안건 가결 같은 경우에는 50%인 62명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의결 같은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되겠습니다.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표를 양 복도의 끝으로 모아주시면은 저희 의결 도우미가 비표를 모아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표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권하신 대의원분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집계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집계)

본 안건 의결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출석 대의원 123명, 찬성 12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의결 도우미 분들께서는 비표를 다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로 의결을 진행하는 특성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준 안건은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먼저 배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는 캠퍼스로 구분되지 않는 자유전공계열 회원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배분 기준에 대해선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를 제외한 총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 특별자치기구에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있으며 각각 총학생회비의 28% 그리고 11%를 배분받습니다. 남은 61%는 단과대학 및 독립 단위 학생에게 받아 학생회가 배분받습니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칭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과대학의 장기 등록생이 현재 계시기 때문에 대학 중인 학우분을 고려하여서 법과대학에 학생회비를 배분하되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에 학생회비를 배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당 학생회비는 남은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 배분 비중입니다. 자유전공계열 학생회 경우 캠퍼스 구분 없이 본회의 소속 본회의 회원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각 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각 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 양쪽에서 동시에 의결을 받아서 의결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한다. 그리고 각 캠퍼스의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해당 금액의 50%를 각각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61%를 단과대학 학생에게 단과대학 학생회가 배분받으며 이를 자유전공계열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칭하고, 자유전공계열 단과대학 배분액은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액, 단위별 인원수 비례액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의 50%, 단위별 인원수 비례의 50% 각각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자료집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대의원 여러분들게 한 가지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 같은 경우 학부대학에서 자유전공계열 등록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여름 중에 실시한 전공 진입 희망 학과 수요조사를 토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내부 기밀 자료로 분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현 시점에서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해당 항목에 따른 수치 그리고 자유전공계열 학생에 비해 세부적인 배분 수치에 대해서 공유드릴 수 없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총 단과대학 학생회비가 정해지게 되는데 자료집 24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학생회비 배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5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320만 원을 먼저 제한 후에 배분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점 아래의 금액은 편의를 위해서 생략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사금은 추후 학생회비로 편입될 예정임을 밝힙니다. 현재 자료집에 나와있는 학생회비 배분안 같은 경우에는 등록생이 계속해서 변동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소폭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20시 4분이 됐는데요. 20시 9분까지 학생회비 배분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회비 배분안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는 대의원분들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분이 되었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질의 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은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도우미 분들게 비표 건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에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권하시는 분들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현재 출석 대의원 119명 중에서 11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표 도우미 분들께서는 다시 비표 대의원분들게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결 받은 학생회비 배분안 같은 경우에는 추후 추가 등록, 휴학생 등 정리가 완료가 되게 된다면 소폭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소폭 변동이 되므로 이에 대한 배분 금액은 추후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각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결 결과에 좀 변동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출석 대의원 119명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19명 찬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출석 대의원 120명이었고 찬성 또한 120표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준 안건은 학생회비 결산안입니다.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기 학생회비 2,020,368원, 당기 학생회비 15,136,800원, 예금 결산 이자 2,268원, 수입 총계 17,159,436원입니다. 지출은 문행대동제 실무 비용으로 8,000,000원, 문행대동제 티셔츠 제작으로 5,955,600원 모두 자연과학캠퍼스 분할 납부했으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지출 총계는 13,955,6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 잔액은 현재 3,203,836원입니다. 세부 내용 및 근거 자료는 뒤쪽 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0시 17분이므로 20시 22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분 됐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결산안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는 대의원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118명입니다. 2026학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원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표를 다시 한번 도우미 분들게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을 인준하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대의원분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의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 대의원 총 118명이고 찬성은 11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도우미 분들께서는 비표 다시 돌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26학년도 2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3,203,836원, 그리고 당기 학생회비 8,526,000원, 수입 총계 11,729,836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ESKARA: 초록의 파도 실무 비용으로 이제 금액 10,000,000원 잡혀있고 차기 이월금으로 729,836원, 그리고 예비비로 1,000,000원 잡혀있습니다. 지출 총계 11,729,836원으로 수입 총계 지출 총계 동일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재정 운영 세칙상 예비비를 학생회비 예산 총액의 10%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지출 근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ESKARA: 초록의 파도 실무 비용 견적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 ESKARA: 초록의 파도를 위해서 학생회비를 통해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교비, 후원금 등 모두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관계로 현재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 인준이기 때문에 학생회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보여드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29분인데 뒤쪽에 안건들이 조금 긴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32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분 됐습니다. 본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는 대의원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옆에 도우미 분들께 비표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을 반대하는 대의원분들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대의원분들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

출석 대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가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논의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 논의 안건입니다.

논의 안건 같은 경우에는 단일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요. 저희 소집 공고에 따라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가입의 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타 안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2026 ESKARA: 초록의 파도 단체 입장과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일 논의 안건 한국대학 공동포럼 가입의 건입니다. 본 QR 코드를 통해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서 보내온 소개서를 함께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서를 앞에 같이 띄워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가입의 건입니다. 줄여서 계속해서 공동포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의 의제와 실무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총학생회 연합 플랫폼입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의 독립성과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한 개의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제도, 학생 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 연대와 규모의 전문성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공동포럼은 의제 발굴, 자료 조사, 회원교 의견 수렴, 대외 소통 정책 제안 조직 운영을 연결하는 상시 협업 체계를 진행합

니다. 공동포럼은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뒷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포럼에는 5개의 종합대학과 5개의 과학기술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 페이지에 보이는 10개의 학교에 더불어서 현재 서울시립대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울시립대에서는 대의원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가입이 의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도 현재 제3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공동포럼의 소속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성균관대학교 또한 공동포럼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학생들, 청년들과 관련된 의제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어째서 저희 제58대 총학생회 S'PEAK에서 공동포럼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포럼은 여러 대학의 연대를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위원교에 더해서 신규 운영위원교의 추가로 역량 강화를 현재 포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포럼 운영 성과입니다. 공동포럼은 2023년 2024년 조직 이후 여러 방면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하여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기 사업으로는 학생자치 정기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 추진단 대학생들을 공개 모집을 하여 의제 발굴 및 법안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법안 발표회를 통한 대학생 법안 설명, 협력위원실 발의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R&D 예산 삭감 대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서울시 청년 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포럼 차원에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대통령 선거 대응, 대학생 시국 포럼 및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정책 아이디어를 수납하고 각 정당 후보 인물들을 고루 만나면서 정책 수립에 청년 대학생의 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동행동을 포럼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2026년에는 국회 대학생 입법 추진단 2기 발족 및 정책 제안 진행 예정이고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러 대학과 연대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때 포럼 소속교는 아니었으나 다른 비소속교들과 함께 우리 성균관대학교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같이 공동 대응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설문조사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먼저 공동포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같은 공동포럼의 최고 상시 의결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소속 총학생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실무위원 1인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포럼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에 우리 대학도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처입니다.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처럼 의결권 외에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과 기획 실무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위원과 별도로 실무위원을 각 교에서 1인 파견하여 업무를 맡게 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제4기의 비전과 운영 원칙입니다. 뒤쪽에 조금 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포럼 소속도 아니고 소개서를 받아서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비전, 역량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43분이기 때문에 46분까지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포럼 가입 추진에 대해서 총학생회의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서를 읽으시면서 질의 사항이 생기시면은 바로바로 거수하셔서 발언권 얻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분 됐습니다. 질의 사항 있는 대의원님 계실까요? 마이크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학과 학생회장: 총학생회장과 실무위원 중 실무위원 1인은 어떻게 지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공동포럼 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파견하게 된다면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급 인원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운영위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학풍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좀 회의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우리 대학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교와 교류하는 전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함은 일말의 교류도 없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학생들과 관련된 현안, 대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유를 받지 못하거나 공유가 늦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기존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의 문제점을 실감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동포럼의 주도로 진행했던 여러 차례의 회의 여러 번의 공동행동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명의로 제가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연이 닿아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타교 총학생회장의 연락을 받고 그렇게 가게 됐었는데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

다. 지속적인 소통 체계, 커넥션이 없이 단순히 개인의 관계,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대학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공유를 받게 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른 대학들 특히 공동포럼의 주도로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대응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성균관대학교 또한 더 이상 뒤쳐져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제의를 받고 동시에 저희 쪽도 깊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총학생회 실질적인 대표 의결 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의결을 받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안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만약 인사캠과 자과캠 두 곳에서 동시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공동포럼의 운영위원회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포럼 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총학생회장 임기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들 그리고 소개서에 나와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있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상황이고요. 우려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럼 측에 질문해서 소개거에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질의 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의결 진행 위해서 도우미 분들께서 다시 한 번 위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가 가입한다 찬성하시는 대의워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대의원 분들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권하실 대의원분 계신가요? 비표 모아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의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의원 총 110명 중 찬성 102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됐습니다. 도우미 분들께서는 비표를 다시 대의원분들께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 결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의원 총 110명 찬성 102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재 자과캠도 본 안건 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학대회가 폐회되는 시점에 포럼 측에 연락을 넣어서 가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동포럼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에서 논의하던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혹은 더 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 계신 전체학생대표자인 대의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크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 안건 상정하고 싶은 대의원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기타 안건 및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 안건은 2026 ESKARA: 초록의 파도 단체 입장 안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여드린 QR 통해서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노션 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시 30분경에 ESKARA: 초록의 파도 단체 입장과 관련된 게시물이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서 업로드가 됐습니다.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KARA: 초록의 파도 단체 입장이란 '응원제 1398'이 진행되는 ESKARA 2일차에 본인의 소속 단위와 함께 팔찌를 배부받고 입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 입장을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단체 입장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단체 입장을 하는 인원들, 그리고 단체 입장을 위해서 실무를 하는 인원들에게는 어떠한 복지가 주어지게 되는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입장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ESKARA가 어떤 축제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SKARA라는 명칭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축제의 명칭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현행의 ESKARA: 초록의 파도가 9월에 진행되는 성균관대학교의 응원제를 메인으로 하는 축제라는 정의가 내려진 게 채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제54대 총학생회 Spring에서는 당시 건학기념제를 계승하여서 현행 ESKARA: 초록의 파도 그리고 '응원제 1398'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때 성균관대학교의 첫 통합 축제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됐었습니다. ESKARA가 아까 축제의 명칭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22년도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동제의 명칭도 ESKARA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ESKARA라고 하는 말이 명확한 정체성 없이 계속해서 붙여지는 이름이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55대 총학생회 SKKUP에서 ESKARA 1398을 자연과학캠퍼스 글로벌광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56대 총학생회 SURE에서 초록의 파도 명령문 공표하고 응원제 2부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총학생회인 제57대 총학생회 SCATCH에서는 응원문화혁신을 추진을 하였고, 현재 올해 저희 제58대 총학생회 S'PEAK에서는 상반기 응원 OT, 2026 ESKARA: 초록의 파도 응원 OT, 그리고 현재 단체 입장 추진까지 계속해서 ESKARA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총학생

회가 첫 ESKARA: 초록의 파도를 준비할 때 정의를 내린 것은 ESKARA: 초록의 파도는 응원제를 메인으로 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축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ESKARA: 초록의 파도에서는 '응원제 1398'이 메인 콘텐츠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SKARA: 초록의 파도는 '응원제 1398'을 메인 콘텐츠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참여율은 사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원화 캠퍼스라는 특성, 그리고 아직 덜 활성화되어 있는 응원 문화 등을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경쟁 대학에 비해서 소속 단위 학부라든지 학과라든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속감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는 대계열제의 존재 그리고 중앙 동아리 및 학생단체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소속감의 부재는 소속 단위와 공유하는 기억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응원문화혁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응원 OT 같은 경우에는 새천년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의 800석이 24시간 이내에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일부 불참 인원들을 제외하고도 현장 신청 인원을 통해서 전석 다 채워서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 응원 OT에서 약 800명 중에 약 87%가 단체 신청을 통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해당 87%의 단체에는 LC가 60.3%, 학과가 9.6%, 동아리가 8.2%, 그리고 기타가 21.9% 가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와 응원단은 ESKARA: 초록의 파도에서 단체 입장 도입을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소속 단위와 함께 콘텐츠를 향유하고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속 단위와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콘텐츠를 즐기면서 소속감을 증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ESKARA: 초록의 파도 메인 콘텐츠인 응원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접점이 없는 옆에 처음 보는 학우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제를 즐기는 것보다는 일면식이 있는 본인 소속 단위의 사람들과 응원제를 즐기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응원제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소속 단위 학과, 세부 전공, 학부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나감으로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소속감 고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본교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총학생회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문장 제작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별 소속감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올해도 단과대 문장 수정을 진행하였고 ESKARA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체 입장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 소속감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ESKARA의 형성 배경 그리고 단체 입장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시면은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뒤쪽에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입장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금 보이시는 단위들과 같습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그리고 캠퍼스 무관하게 동아리연합회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Freshmen Guide에서 융합 LC를 통솔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들이 단체 입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단과대학 그리고 독립 단위 산하에 있는 여러 학과들 학부 세부 전공 분들께서는 실무 인력을 어느 정도 파견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단위별로 최소 인원의 실무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드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쪽에 시행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입장 사전 홍보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서 단체 입장과 관련된 게시물 시행 안내와 복지 혜택 안내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단체 입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단체 입장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공지가 나간 상황이고요. 단체 입장을 이후에 신청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실제 당일에 단체 입장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체 입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단과대학에서 통합 공지를 작성하고 그 단과대학 산하에 있는 여러 학과에서 신청 공지를 작성을 해서 공유드리게 됩니다. 먼저 중앙운영위원회 분들께서는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단체 입장 신청과 관련된 통합 공지, 세부 단위에 대한 통합 공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학과 분들께서는 단체 입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학우분들을 게시물을 통해서 모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집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구글 폼 내용 등은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체 입장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공개된 이후 시점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ESKARA와 관련된 게시물은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학과별로 신청을 구글 폼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그대로 구글 시트를 총학생회 측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구글 시트를 단과대학 측으로 보내주시면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세부 단위들의 명단을 수합해서 총학생회 측으로 보내주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총학생회 명단을 확인하고 단체 입장 신청 확인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분들께서는 단체 입장 실무와 관련해서는 게시물 1개 그리고 구글 폼 업로드, 해당 명단을 단과

대학에게 보내주시는 정도의 업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KARA: 초록의 파도 응원제 1398 당일에는 단체 입장을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단체 입장은 12시부터 14시까지 시행이 되는데, 단체 입장 시간에는 개인 입장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2시부터 14시까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단위별 입장 순서에 맞춰서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집합 후 팔찌 배부 그리고 도열 및 입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단체 입장이 시행된다, 거기에 더해서 단체 입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지를 현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안내 공지를 작성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도 고려대학교 레퍼런스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단체 입장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구비해 오면 되는지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 가이드라인도 총학생회 측에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가능하다면 단위별 모든 게시물들을 학과까지는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기는 어려지만 단과대학은 총학생회에서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과대학 차원에서 단체 입장 안내 공지를 작성해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를 한 다음에 실제 당일 날 단체 입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별 팔찌 배부 시각 최소 30분 이전에 집합을 하셔서 1차 신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신원 확인이라 함은 단체 입장 신청 확정 문자를 봐주시면 되고 별도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각 단과대학별로, 여러 학과별로 집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이 집합하게 된다면 사회과학대학 내부에서도 8개의 학과가 개별적으로 뭉쳐서 1차 신원 확인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과 학생회 집행위원분들께서 최소 인력을 파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파견 인원이 현장에서 1차 신원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찌 배부 시작에 맞춰서 티켓 배부 부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학술정보관 앞 잔디밭 글로벌광장으로 가셔서 티켓을 받으시고 한 번 더 단과대학별로 도열하신 후에 대운동장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게 글로벌광장 안에 있습니다. 모든 단위가 글로벌광장 안에서 배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집합 위치가 단위별로 별도로 지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광장 내에서 집결을 하고 1차 신원을 확인, 1차 신원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부스에서 팔찌를 받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지정 게이트를 통해서 대운동장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단위별 지정 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정 구역이 별도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별로 도착 위치를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운동장 장내에 진입하신 다음에는 별도로 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과 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현재 도착한 인원들의 퇴장을 막거나 혹은 통솔하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후 운영인데요. 14시 이후부터는 개인 입장 팔찌 배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입장하시고 나서 퇴장하셔도 되고 장내에서 주간 부스 등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즐기셔도 되는데 저희가 단체 입장을 해주신 학우분들을 위해서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품 추첨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 기존 축제들과는 다르게 무대 콘텐츠를 오후 2시부터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 입장 팔찌 배부가 시작되는 2시부터 '응원제 1398' 1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타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소통창구를 통해 올라간 단체 입장 시행 안내 게시물에 나와 있는 타임 테이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부처 3시까지 응원제 1부가 진행이 되고 3시부터 바로 아티스트가 올 예정입니다. 아티스트, 동아리 공연, 다시 아티스트, 응원제 2부, 아티스트, 응원제 3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단체 입장 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 입장에 참여하시는 학우분들 그리고 단체 입장 실무에 참여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총하생회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 인원 대상으로는 단위별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학과 단위별 행사로 소화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과별로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학과의 인원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대표적으로는 개강총회 및 개강파티 등이 있겠죠. 사실 이러한 행사 외에 별도로 없는 학과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단체 입장을 통해서 학과 단위의 인원들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된다면 해당 인원들을 그대로 학과에 발을 붙일 수 있게 학과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학과 학생회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가능하시다면 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실무 인원을 최소 인원을 어느 정도 파견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오시는 분들께는 바로 팔찌를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단체 입장 팔찌와 개인 입장 팔찌를 별도로 구분할 예정이었는데 뒤에 나오는 경품과 관련해서 입장 팔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무 인원분들께서는 전부 단체 입장 팔찌를 배부받으시게 됩니다. 본교 행사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 또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현재 확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실무단 인원들 우선적으로 인자셔틀을 배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으로 현재 다른 단체와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과 학생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점 렌탈비도 현재 단체 입장에 참여하시는 단위 분들께 어느 정도 총학생회가 부담을 해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행사로 소화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뒤풀이만이 아니라 만약 주점을 하시게 된다면 주점으로 그 인원 수요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점까지 하시게

된다면은 단체 입장의 수혜를 조금 더 크게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렌탈비까지 일부 총학생회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의 복지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참여율, 참여율이라고 함은 단과대학 전체 재학 인원수 중에서 얼만큼의 비율이 참여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단과대학에 내년도 입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공연 시간대 15시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는데, 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통창구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1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26 화이트 256GB 1대, 2등 갤럭시 워치 8 실버 2개, 그리고 3등 갤럭시 버즈 3 15대, 여기에 더해서 현장에서 추첨 통해서 아티스트 사인 유니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아티스트와 조율이 추가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추첨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들은 전부 다 현장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단체 입장 팔찌를 실무 인원들도 다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경품 추첨은 단체 입장 팔찌를 갖고 있는 인원들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 방안과 혜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정말 포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라든가 신청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게시물 내용 등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체 입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았고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설명하기 전에 요청이 들어온 단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방금과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그리고 경제대학 단위운영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단체 입장 학우분들의 단위별 소속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단체 입장이 시행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학생회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의 역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학생사회에 종사하고 계시는 학과 학생회장단 그리고 대표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무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속감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비록 새로운 시도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혹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결국에서는 총학생회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소속감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실무 인력 그리고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실무 인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단체 입장을 신청을 받을 때 학과별 홍보라든가 독려라든가 유도 같은 것들도 사실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통계학과 학생회장: 만약에 2시 전까지 팔찌를 배부받았을 때, 팔찌를 이미 소지하고 있을 때 단체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건가요?

총학생회장: 단체에서 받고 이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장 후 혹은 입장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계학과 학생회장: 입장 전입니다.

총학생회장: 입장 전에는 저희가 통제할 수단도 없고 사실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받이스고 만약에 입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통계학과 학생회장: 만약에 통제를 안 하게 된다면 팔찌를 받고 바로 이탈해서 상품 추첨받는 등의 악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방금 이렇게 통제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매뉴얼 전달할 때 그리고 상세 안내 공지할 때 피드백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과 학생회장: 단체 입장 혜택과 관련해서, 아티스트 첫 공연이 15시로 총학생회도 많은 논의 후에 발표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면 손해인 거지 혜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진행할 때 이러한 문구는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결국에는 사실 15시에 아티스트를 부르는 것은 단체 입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오히려 단체 입장 또는 축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ESKARA: 초록의 파도 응원제 1398 그리고 단체 입장 그리고 축제 참여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장: 학과별로 입장을 도와주는 실무 인원의 경우 학생회장단이 실무 인원을 배정하면 우선 배정되는 건지 기존 모집되는 실무 인원이 배정되는 건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서 별도로 실무단을 모집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학과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실무 인력을 내부적으로 모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학식을 와보신 분들도 입학식에서 실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냐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에 단체 입장 관련된 매뉴얼을 전달드리면 최소 인원들이 표시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최소 1~2인 상주 혹은 인원이 많은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에서 6인이 상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단체 입장과 관련된 실무 인원수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수이기 때문에 실무 인원을 현장에서 교체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조정하셔도 되기 때문에 실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은 다 받을 예정입니다.

사학과 학생회장: 가장 높은 참여율 보인 단과대학에게 내년도 우선권 부여인데 문과대학의 경우 가전공이나 LC 등으로 인해 LC 참여율이 높을 것 같은데, LC가 없는 단위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총학생회장: 일단 계열제 중에 가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전공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LC로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복 신청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한 개의 단위로만 단체 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열제 인원들 그리고 학과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참여율이 높은 단과대학에 어떻게 우선권을 배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단위의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 회장단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다른 계열제 그리고 학과제 단과대학 회장단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선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부학생회장: 혹시 단체 입장이라고 했을 때 최소 인원 충족 조건이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최소 인원 충족 조건은 현재 만들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 인원은 현재 잡아두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전체 인원에서 2천명 정도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캠과 자과캠 단위를 합하면 20개가 조금 넘기 때문에 단위별로 100명 이상 참여한다 했을 때 궁극적으로 2천명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렸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따로 상정하지 않은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수많은 학과들 세부 전공 학부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모이지 않은 곳들은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러한 단위들에 있어서는 해당 학과 현장에서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장: 실무 매뉴얼 관련해서 언제까지 전체 공유가 가능한지?

총학생회장: 단체 입장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전파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가이드라인, 자보 내용 등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인원을 받은 다음엔 단위별 참여 인원이 선정이 되어야 해서 정확한 내용까지 나오려면은 신청이 마감된 이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최대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실무 매뉴얼을 다 숙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OT를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질의를 받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동아리연합회는 단과대학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인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집행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텐데 상대적으로 단체 입장으로 인한 과부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아리연합회 측 단체 입장 실무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인원 파견 가능한지?

총학생회장: 해당 시간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실무가 없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혹시라도 동아리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실무 인원이 부족한 단위가 있다면은 저희 차원에서 최대한 인력 파견해서 단체 입장 도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부학생회장: 단체 입장이라 한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없다면 너무 저조하게 참여하거나 과도하게 참여했을 때 생각보다 크게 잡히면 통솔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대비 방안이 있을까요?

총학생회장: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단체 입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위별 입장 시각을 앞쪽으로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솔과 관련해서는 인원이 많은 단과대학이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분할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이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면 문과대학 A과 B 등으로 분할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단위를 좀 나눠가지고 입장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소속 단위에 대한 소속감 증진이라는 목표에 조금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문과대학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과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단체 입장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이 덜할 것 같습니다.

경제대학 학생회장: 학생회에서 모든 인원이 해당 일정을 빼놓을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잡아놓은 실무 최소 인원이 있는지?

총학생회장: 학과는 1-2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과의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라고 하면은 사실 2명 정도만 있어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별 2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과대학 단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4에서 5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서 교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학과 부학생회장: ESKARA가 율전인데 업무 시간과 집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총학생회장: 집결 시간이나 업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별 입장 순서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 진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과캠까지 가는 시간이 짧게 잡아봐야 1시간 반, 조금 밀릴 경우에는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이후 시점인 1시 이후에 계속해서 팔찌 배부를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가장 빠른 인사캠 단위가 13시부터 팔찌를 배부받는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집합 30분 이전 기준으로 지킨다면은 12시 30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와 있는다 했을 때 12시 20분, 그러면은 아마 가장 빨리 출발하시는 실무 인원들은 넉넉하게 잡아서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출발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행사참여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급을 해드릴 텐데 아마 예대 쪽에서 여쭤봐 주신 이유가 실습이 좀 많아서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소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교강사 재량 때문에 저희가 다 발급해 드린다고 다 인정해 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체 입장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자 하실 때 행사참여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은 사전에 해당 교수님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행사참여확인서를 통해 인정이 되겠느냐를 확인해 주시면은 어려움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무 참여할 때 있어서 행사참여확인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해당 단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본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본부 그리고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장: ESKARA 관련해서 실무단 모집 별도로 안하는 건가요?

총학생회장: ESKARA 실무단 모집은 현재 종료됐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장: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와 글로벌경영학과가 있는데 글로벌경영학과의 경우 학과 학생회가 있지만 경영학과는 학과 학생회가 없는데 재적인원은 많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모두 통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추가인력의 경우 총학에서 배치해준다고 했는데 실무단에서 배치하는 건지 혹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이 오는 건지 여쭤봅니다.

총학생회장: 일단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반장단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실무 인원을 모집하시게 된다면은 경영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외에도 반장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경영대학은 경영학과를 다 모아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입장을 하는 것보다 반별로 모이는게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대학의 문화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 시스템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경영대학 차원에서 진행하시게 됐을 때는 저희도 별도로 전달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렇게 반 체제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무 인원이 어느 정도 최소 반별로 한 명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아서 실무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아무래도 단체 입장이라고 하는 행사가 저희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최대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분들을 파견해서 실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2026 ESKARA: 초록의 파도 단체 입장과 관련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가이드라인 게시물 내용 매뉴얼, 최소 인력 등은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과 하위 기층 단위 학생회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굉장히 복잡성도 뚜렷한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도입되는 데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리고 당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저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 통해서 피드백 주시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

꾸고 그리고 추후에도 단체 입장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연락처를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중앙운영위원회에게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각 단위 운영위원회에 배포해 주시면은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 더 없으시면은 건의 및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의 및 질의 사항

총학생회장: 건의 및 질의 사항 있을까요?

없으시면 폐회 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 선언

총학생회장: 2026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1시 39분경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 몇 년 통틀어 가장 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한 안건들 안내해 드린 안건들 외에도 얼마든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니 여러분들께서 대의원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책임 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늦게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확인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띄워드리는 QR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